

the other 의 겨울 방학

1. 세미나

☆일정 : 매주 월요일 3 : 00

★주제 : I. 파시즘의 대중심리 2, 3, 4, 8 (9)장

II. 프랑스 5월 혁명

III. 현대세계의 일상성

IV. 세계 여성사 (교재 미정)¹⁾

V. 세계 여성운동사 (~~세계 해방운동의 역사 - 4의 -~~)

VI. 한국 여성운동사 (여성학 강의 - 동년 -)

i. 노동법 개정과 여성노동자의 문제

ii. 여성운동 단체를 탐방하고 활동 내용 분석

세미나 교재가 너무 난해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책을 위한 세미나나 글자를 이해하는 데에 너무 많이 지쳐버린 것 같다. 위에 나온 책은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책이므로 잘 읽었으면 좋겠다. 발췌독이므로 그렇게 지겹지는 않을 꺼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세미나가 이전과는 다르게 현재 유통되는 담론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보려고 한다. 실제 우리가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 이상의 현실의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준비 과정인 것이다. 일단 노동법과 여성운동단체에 대한 탐방 분석이 들어가 있는데 이외에 개인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들어갈 수 있다.

2. 외부 활동 계획

여성의 문제라는 것들이 일상의 문제라는 것들은 세미나 속에서 꾸준히 문제제기 되었다. 과연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웬, 거창한?) 현장 활동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속에서 매춘지역 활동을 같이 해보려한다. 일단 방학중 참누리와 연계로 통해 the other 의 활동에서 이후 여성 자치 연합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면한다. (지영이와 지현이가 섭외를

1) 여성의 삶, 일상은 역사라는 틀에 담겨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언제나 계급이나 민족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시민 노동자 등의 이름으로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잊어야만 했을지도 모른다. 실제 성폭력의 역사라는 책을 보더라도 그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언제나 민족, 국가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 속에서 정의, 평화 등을 위한 전쟁들이 있었고, 여성들에게는 수많은 폭력이 가해져 왔다. 그러나 대의를 위한 전쟁들과 국가 수립 속에서는 성폭력과 그것을 둘러싼 여성의 수난사는 언제나 묻혀져 버릴 뿐이다. 이것이 바로 주류(그것이 비록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하더라도)역사가 갖는 환상이고 오류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문제제기를 하고 동시에 여성의 역사를 발굴해내는 작업을 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역사가 갖는 의미일 것이다.

한다고합니다.)

3. O. T 계획

일단 the other 내부의 기획단은 꾸려졌으나 무엇을 할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지 않은 상태이다. 일단 2월(17,18일)에 학교·학생회 차원에서 하는 오티를 준비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 3월에 여성자치연합 독자적으로 캠프나 교양학교를 준비하려한다. 3월의 행사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공간 확보는 1월 초쯤 끝나야한다고 한다.

4. 이월의 문제

선거 만큼 힘든 문제가 아닌가...

위원장을 뽑느냐 마느냐, 또 누가 되느냐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다음 학번들이 내년 준비를 하고 주체로 서는 과정에 '위원장'이라는 것이 존재하게될 뿐이다. 내년에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의 구체적인 고민이 있다면 위원장은 필요없을지도 모른다. 또 만일 위원장이 선출되더라도, 위원장을 하나 달랑 세워두고 우리 스스로 중앙 집권적 권력을 상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한다.

어쨌든, 빨리 이 문제의 매듭을 지었으면하는 것이 모두의 바램일 것이다.